

오순절 후 두 번째/아버지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6월 1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02 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통일 40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5 번 시편 47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4:18-31	장경국 집사
찬 양 Anthem	“소명의 노래”	찬양대
설 교 Sermon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So The LORD Let Him Alone)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별연주: 박준 교우)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12 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통일 341)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는 신앙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앞섰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더 이상은 없매이기 쉬운 죄의 유혹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심과 그릇된 욕망을 좇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통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4:11, 미 6: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개역개정 **출4:26**)

“So the LORD let him alone. (At that time she said ‘bridegroom of blood,’ referring to circumcision.)” (NIV **Exodus 4:2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19 (주일)	6/20 (월)	6/21 (화)	6/22 (수)	6/23 (목)	6/24 (금)	6/25 (토)
본문	신24 시114,115	신25 시116	신26 시117,118	신27:1-28:19 시119:1-24	신28:20-68 시119:25-48	신29 시119:49-72	신30 시119:73-96
	사51 계21	사52 계22	사53 마1	사54 마2	사55 마3	사56 마4	사57 마5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6/22수 오후7:30)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록”(룻2:14-23)
토요 새벽기도회(6/25토 오전6:30)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시86:1-17)

지난 주일(6/12)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6)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 4:1-17**)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지낸지도 (벌써)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모세의 바램과는 달리, 무료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모세는 점점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겠구나! 라는 무력감에 빠져들었음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메마름과 꺾어’를 뜻하는 ‘호렘’으로 양떼가 몰고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직접) 만나 주셨고, (친히)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라는 중요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변변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망설였을 뿐만 아니라, 순종보다는 거부, 믿음과 확신 보다는 의심과 변명의 말을 먼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래동안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in your hand?)”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1)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이고, 2)위험부담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초청이며, 또한 3)제대로 내려놓고 버려야만 (진정) 온전한 것을 얻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땅에 던지라고 명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주저함이 나 망설임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